

'3퇴'와 평안

제221기 2015년 8월 15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5년 8월 9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사람은 2억 1,117만 명을 넘어서다.

장쩌민 고소 열풍에 고무된 대륙 관광객들 앞 다투어 ‘3퇴’

[밍후이왕] 지금 유럽은 여행 성수기다. 관광명소에서 중국대륙 관광객의 ‘3퇴’(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를 돕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상자료를 나눠주고 ‘3퇴’를 권하기에 앞서 적어도 13만 명의 국내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려 준다. 이 소식을 들은 관광객들은 흥분해서 말한다. “참 잘 됐어요!”, “형세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하니 정말 변하네요!”, “장쩌민마저 끝장났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저도 지금 당장 탈퇴하겠습니다!”

한 노(老) 선생이 장쩌민을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동되어 말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모든 중국 사람이 장쩌민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마다 장쩌민을 고소해야 합니다. 장쩌민은 진선인(真善忍)을 탄압했는데, ‘진선인’이 뭐가 틀렸습니까? 중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진선인’입니다. 장쩌민은 천리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으로 징벌해야 합니다!”

관광객, “모두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위스 루체른에 온 베이징 관광단의 한 남성 관광객은 가이드도 아니고 인솔자도 아니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을 보자 같은 차의 관광객들을 불렀다. “어서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한 가지 말만 듣지 말고 다른 말도 들어보세요!” 관광객들은 그의 부름을 듣고 우르르 몰려와 수련생을 돌



‘초점방담’이 방송한 ‘천안문 분신자살’ 장면을 보면, ‘분신자살’을 시도한 왕진동의 옷과 얼굴은 탔지만,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병은 고온의 불길 속에서 손상되지 않았고, 제일 쉽게 타는 머리카락도 역시 손상을 입지 않았다. ‘왕진동’의 뒤에 있던 경찰은 방화담요를 들고 자세를 취하다가 왕이 구호를 다 외친 후에야 방화담요를 왕의 머리에 씌웠다. 결국 연극을 한 것이다.

장쩌민 고소 사례 총 숫자와 고소인 총 숫자의 시간별 증가표



러싸고 조용히 진상을 들었다.

파룬궁 수련생은 파룬궁의 신기함과 아름다움, 파룬궁 사부님의 자비와 위대함을 이야기했다. 모든 관광객의 얼굴에는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눈에서는 경앙과 감동의 빛이 흘렀다. 수련생이 ‘3퇴’를 권할 때는 조금의 장애도 없이 한 차의 20여 명이 줄을 서서 ‘3퇴’ 등록을 했다. 수련생이 말했다. “제가 ‘당신의 행복을 축원합니다(祝你幸福)’ 이 단어로 여러분의 가명을 지어 드릴게요.” 관광객은 “말씀만 들어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 관광객, “우리는 모두 장쩌민 고소를 지지합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막 차에서 내린 한 무리의 관광단을 향해 장쩌민 고소 열조를 말하자 어떤 사람은 몸시 놀라고, 어떤 사람은 몸시 기뻐했다. 한 60대 남성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장쩌민은 오래 못 갑니다,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천안문 분신자살이 가짜라는 말을 듣고 그는 말했다. “그 때 텔레비전에서는 반 시간에 한 번씩 방송했습니다. 지금은 왜 방송을 안 하는지 장쩌민한테 물어보세요. 날조 모함한 게 분명하고, 나는 당시에 안 믿었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겁내는 것이 바로 당신들 파룬궁입니다.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장쩌민 고소를 지지하니까, 빨리 당신들이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수련생이 그에게 “그럼 제가 가명을 지어 드릴테니 3퇴하시죠?”라고 말하자 그는 “좋아요. 좋아요.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관광객과 파룬궁 수련생, 공감대가 형성되다

대륙 관광객과 교류하던 수련생이 물었다. “차오스(喬石)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유감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옆의 관광객이 물었다. “무슨 유감인가요?” “해외 최대의 중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첫 번째 유감은 파룬궁 문제가 해결되는 걸 못 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쩌민이 심판 받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였다. “1998년 차오스는 전국 인대 노 간부들을 거느리고 파룬궁에 대해 상세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100가지 이로운만 있을 뿐, 해로운 점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쩌민이 우두머리로 있던 중공 정치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99년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파룬궁 문제를 토론했는데, 다른 상무위원들이 모두 탄압을 반대했고, 오직 장쩌민 혼자 탄압을 고집했습니다.” 수련생은 이어서 말했다. “체제 내의 차오스마저 파룬궁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랐으니, 국가는 박해 받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마땅히 국가 차원의 배상을 해야 하고, 박해 원흉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주위의 관광객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련생은 또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장쩌민이 선동한 파룬궁에 대한 적개심, 불법(佛法)에 대한 적개심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장쩌민을 고소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수련생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밍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동아닷컴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밍후이왕]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 콤플렉스 혹은 인질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인질로 납치된 피해자가 막다른 상황의 공포 속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현상이며, 피해자는 심지어 납치범을 도우면서 구원자를 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 납치사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비정상적인 심리 질환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생하기까지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2. 가해자가 통제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푼다.
 3. 피해자는 모든 정보 통로가 차단돼 가해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다.
 4. 피해자는 출로가 없다며 절망에 빠진다.
- 중공이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은 사실상 공산 국제 납치범들이 전체 중국인을 납치한 것과 같다. 중국인에 대한 중공의 통치수단은 납치범이 인질을 통제하는 수단과 매우 비슷하다.
1. 중공은 폭력통치를 유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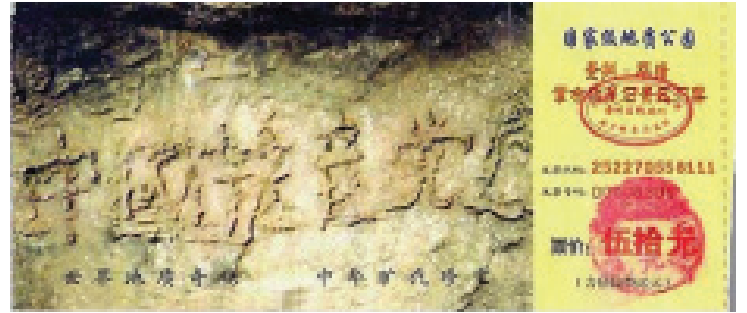
기 위해 ‘진반’, ‘토개’, ‘3반’, ‘5반’, ‘대약진’, ‘문화’, ‘6.4’, 파룬궁에 대한 박해 등 일련의 정치적인 살인 운동을 벌여왔고, 백성은 물론, 관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공포로 국민을 굴복시킨다.

2. 중공은 생산물자 공유제 사회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다가 사회모순이 격화되자 개혁개방이란 명목으로 일부 정책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법치를 추진하면서 약간의 걸치레 혜택으로 백성의 호감을 얻는다.

3. 중공의 홍보부서는 전면적인 우민정책 실시와 무신론으로 백성의 사상을 마비시켰고, 언론은 가짜 이론, 가짜 뉴스, 가짜 정보로 넘쳐나고, 늘 국가기밀이라는 구실로 진실한 정보를 봉쇄한다.

4. 중공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감독과 여론을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모함하면서 ‘반화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백성을 출로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한다.

66년 간 계속된 중공의 폭력 통치는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게 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

1. 도적을 아버지로 여기듯 중공에 의지한다.

서양 사람들이 경멸하는 공산 사고(共產邪)를 주의(主義)로 받들면서 중공과 중국을 동일시한다. 정치 살인운동을 ‘안정 유지’로 여기며, 사람을 죽인 후 명예를 회복해주는 범죄행위를 ‘핑판’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다.

2. 상급에 복종하며 악행에 가담한다.

공무원은 스스로 공산당이 주는 밥을 먹는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국민을 잊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상급에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준칙으로 삼으면서 대중을 박해하는 중공의 공범이 되었다. 법과 하늘을 업신여기면서 ‘정치 임무’라는 핑계를 대고,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범

죄로 다룬다.(반당, 반혁명)

3. 외세를 배척하며 자신을 속여 문명의 적이 된다.

‘중국 특색’이라는 구실로 정치 문명을 거부하고, 폭력통치로 국민을 협박하며, 무신론으로 종교 신앙을 거부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진상자료를 감히 받아보지 못하며, 심지어 ‘진선인(真善忍)’의 보편적 가치마저 (박해가 두려워) 감히 인정하지 못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선의적으로 권하는 ‘3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행위로 오해한다.

몇 천만의 중국인을 살해한 중공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장쩌민 집단이 극악무도한 수단을 총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한 최악은 하늘과 신을 분노케 했고, 그 최악은 현세에 청산될 것이다!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귀보송 등의 괴수들이 잇따라 악보를 받고, 장쩌민이 대규모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장 씨 집단에 대한 하늘의 대 심판이 세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비로운 신불은 언제나 사람에게 한 갈래 살 길을 열어준다. 중국인에게 있어 현재 매 사람마다 돈과 힘을 들이지 않고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3퇴’를 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우는 것이다.

친구들이여, 당신이 정중하게 ‘3퇴’를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중공의 납치로부터 철저히 해방되고, 중공이 당신에게 가져온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어 당신은 비로소 마음이 건강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될 수 있다.

—— 언니가 ‘3퇴’를 하고 복을 받다 ——

[밍후이왕] 나에게는 40세가 넘는 순박하고 선량한 언니가 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파룬따파(파룬궁) 제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받아 죽었는지 몰라. 그들은 집에서 몰래 연공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한데, 몸이 건강해져도 사람들이 모를거야. 그런데도 대법제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납치되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 산채로 장기적출을 당할 위험까지 무릅쓰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진상자료를 나눠 주고 있어. 이건 바로 사람들한테 진상을 알려서 파룬따파가 정법(正法)이고, 중공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선악에는 결국 응보가 있고, 중공이 이렇게 선량한 양심을 박해하면 응보를 당해. 우리가 예전에 당, 단, 대에 가입하면서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독한 맹세를 했는데, 겉보기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효력이 있어. ‘생각없이 한 말은 안 한 것으로 친다’는 건 공산당이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야. 사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맹세를 하면 현실로 나타나!” 언니가 말했다. “그래, 맞아.”

“공산당은 중국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전통을 파괴했어. 그들이 이렇게 많은 선량한 사람을 살해하고, 백성을 속여 진상을 모르게 했으니 응보를 받을 거야. 지금 천재인화가 이렇게 많은 건 그걸 겨냥한 게 아닐까? 그것에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응보가 닥치면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오늘 언니가 단, 대에서 탈퇴하는 걸 도와주려고 해. 믿어야 평안이 있고 안 믿으면 없어. 평안을 보장받아야지!”

“그렇다면 탈퇴할게. 그것에서 탈퇴할게! 실명으로!”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도 안 돼 다시 만난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요 며칠 동안 내가 어째서 숨이 차는 걸 못 느낄까?” 언니는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찰데, 지금은 가슴이 후련하고 활기차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언니가 ‘3퇴’를 하고 복을 받은 것임을 안다.